

수정 메이크업이 인상학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강미* · 김주섭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학과* · 상지영서대학 피부미용과

Influence of Correction Makeup on physiognomic Images

Kang-Mi Lee* · Ju-Seub Kim

Master of Biolog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Dept. of Cosmetology, Sangji Youngseo College
(2006. 1. 9. 접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and practical influences of physiognomic correction makeup that may change personal impression on faces, especially general physiognomy including eyebrow, cheek bones, lips. To meet this goal, this study looked into various literature materials on the basic concept and principles of physiognomy. With a series of photos showing 3 steps of makeup, i.e. a face before makeup, a face after general self-makeup and a face after makeup modified in physiognomic manner, a questionnaire survey was applied to the subjects. The results of survey can be outlin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physiognomic correction makeup could change various disadvantageous impressions into positive direction, impression of persons with thin eye brow looking like those with neither brightness nor deserving of any help from others, impression of persons with high cheek bones looking like the strong and masculine, impression of persons with small lips looking like the narrow-minded. Furthermore, physiognomic makeup changed positively changing the impression of persons with round chin looking like the ordinary than before.

Key words : Makeup(화장) , Image(이미지), Face(얼굴), Correction(수정), Eyebrow(눈썹)

I. 서 론

1. 연구목적

사람에게 있어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 피부색, 이마, 눈썹, 눈, 코, 광대뼈, 인중, 입술, 턱 등의 크기 및 위치관계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얼굴에는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와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화되는 후천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인상학에서는 얼굴을 통하여 운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동료와의 운, 형제·자매와의 운, 친구간의 운, 부부·자식과의 운 등 주위사람과의 운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상학과 메이크업을 접목시켜 개인의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 특히 눈썹, 눈, 광대뼈, 입술, 인중 등이 인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인상학의 이론적 배경

인상학은 인상(人相)을 관찰하여서 사람의 운명

*Corresponding author: Kang-Mi Lee
E-mail: vkqldhfk1108@hanmail.net

을 판단하고 그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흉사를 피하고 좋은 일을 따름(避凶趨吉)의 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이다¹⁾. 이 학문은 본래 중국에서 일어났고, 춘추시대에 진나라 사람 고포자경(姑布子卿)이 공자(孔子)의 상을 보고 장차 대성인(大聖人)이 될 것을 예언하였으며, 전국시대에 위나라 사람 당거(唐舉)도 상술(相術)로 이름을 높였으나 상법(相法)을 후세에 남긴 것은 없다²⁾.

인상학에서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일생동안에 있을 부귀빈천, 행·불행 등 모든 운세를 판단한다. 얼굴에는 상하좌우의 균형이 있는데 얼굴을 가로로 3등분하여 위에서부터 상정(上停 : 머리털난 곳에서부터 눈썹까지의 부위), 중정(中停 : 눈썹아래에서부터 코끝까지의 부위), 하정(下停 : 코끝에서 턱까지의 부위)으로 나누는 것을 삼정이라 한다. 상정은 초년 15~16세 운을 판단하며 창의력·이지력·부모운·관운을 판단하며, 중정은 중년 31~50세 운을 판단하며 금전운·명예·소망운을 판단하고, 하정은 말년 51~75세까지의 운을 판단하며 주택운·가정운·대인 관계운을 판단한다³⁾.

인상학에서는 그 각각의 운을 보는 얼굴 부위가 열두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12궁이라 한다⁴⁾. 관록궁(官錄宮)은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3~5cm 둘레가 그 자리이며, 관운(官運)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출세, 그리고 직업의 성패 등을 알 수 있는 곳이다⁵⁾. 천이궁(遷移宮)은 얼굴에서 이마 양쪽 가장자리(관자놀이 근처)에 위치하고 여행, 이사 등의 운세를 판단하는 부위이다⁶⁾. 복덕궁(福德宮)은 눈썹 끝의 윗부분으로 그 사람의 덕과 인덕을 판단하며 선천적 복을 알 수 있는 곳이다⁷⁾. 처첩궁(妻妾宮)은 양쪽 눈 꼬리 부위이며 애정운을 판단할 수 있는 부위이다⁸⁾. 남녀궁(男女宮)은 아래 눈꺼풀 바로 밑 부분을 말하며, 자녀의 덕행 유무와 숫자, 생식능력 관계, 태어날 자식의 성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이다⁹⁾. 질액궁(秩厄宮)은 눈과 눈 사이의 코 뿌리를 말하며, 재난, 질병 등을 측정, 판단하는 곳이다¹⁰⁾. 재백궁(財帛宮)은 코끝과 좌우 콧망울을 말하며 재산 상태와 관리 능력, 그리고 금전 운세와 사업운을 판단하는데 핵심부위가 된다¹¹⁾. 노복궁(奴僕宮)은 턱을 말하며, 손아랫사람, 고용인 등과의 길흉 관계를 판단한다¹²⁾.

3. 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변화

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 변화는 인상이 좋지 않은 상을 좋은 인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외양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운세를 살리고 나쁜 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상승 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따라서 메이크업은 얼굴의 형태와 위치관계에서 오는 이미지를 메이크업을 통해서 수정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운세를 불러 올 수 있다. 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변화에 대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신일(1977)은 얼굴을 인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형태는 천태만상으로 사람개인이 지닌 특성이 있어 운명도 가지가색이며, 자신이 숙명적으로 타고난 형태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운곽이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Thornhill과 Gangestad(1999)는 눈이 크고 이마가 넓은 것은 젊음과 관련되고, 입술이 도톰하고 광대뼈가 도드라지는 것은 성적 발달의 상징이며, 얼굴세부 요소의 좌우가 동일한 것은 건강을 나타내는 것으로 얼굴의 이미지를 생태학적 기능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Mckeachie(1952)는 입술화장 유, 무가 여대생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의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립스틱을 바른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성실하고, 성적인 특징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경솔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Graham과 Jouhar(1981)는 보통 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이 화장을 안 했을 때와 전문적인 화장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각되는지에 관한 실험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화장을 한 외모가 더 매력적이고, 여성적이며, 세시하게 지각된다고 하였다¹³⁾.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알아보기 위해 메이크업 전 얼굴과 일반적으로 본인이 메이크업한 얼굴, 인상학적으로 수정 메이크업한 얼굴의 3단계 사진을 제시한 후 서울, 신도시, 경기, 강원,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20~40대 성인 남녀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실험 모델 선정

인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눈썹 솥이 없는 사람, 눈이 처진, 눈이 올라간 사람 광대뼈가 나온 사람, 입술이 작은 사람, 인중이 흐린 사람을 모델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는 <표 1>과 같다¹⁴⁾.

2) 메이크업 과정

(1) 눈썹 솥이 없는 사람

- ① 메이크업 전 : 기초화장만 한 상태
- ② 평소 메이크업: 평소에 본인이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단점인 눈썹 솥이 없는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였다.
- ③ 수정 메이크업: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눈썹을 새도우와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하여 눈썹 솥을 많이 표현하였다.

(2) 눈이 올라간 사람

- ① 메이크업 전 : 기초화장만 한 상태
- ② 평소 메이크업: 평소에 본인이 한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단점인 눈이 올라간 부분을 커버하지

<표 1> 눈썹, 눈, 입술, 광대뼈, 인중의 형태 이미지 분류

분류	형태	이미지	
눈썹	색상 질은 정도	질은	강한, 긴장감, 야성적인
		흐린	허약한, 깨끗한, 병약한
	모양	각진	활동적, 박력, 절도, 엄격한
		곡선	화한, 부드러운, 고전적
		직선	짧은, 긴장감, 단정한
	길이	긴	성숙한, 점잖은 고상한
		짧은	경쾌한, 동적인, 명랑한
	두께	가는	연약한, 나이 들어 보이는
폭이 넓은		건강한, 투박한, 안정적인	
눈	모양	올라간	활동적, 야성미, 날카로운
		처진	우울한, 바보 같은, 부드러운
입술	크기	큰	정열적, 어른스러운, 적극적인
		작은	아동스러운, 귀여운, 소심한
	모양	곧은	단호한, 확고한, 사교적인
		느슨 하게다문	따뜻한
		등글고 주름 있는	따뜻한, 사랑스러운
	두께	얇은	내정한, 겸손한, 신중한
		두툼한	온화한, 나태한, 방종한
		윗입술이 풍부한	사랑을 주는, 자만의
아랫입술이 풍부한		사랑을 받는, 질투심	
	도톰 하고작은	온화한, 나태한, 방종한	
광대뼈	모양	뛰어나온	독립심, 개척정신, 투지의 강약
인중	질은 정도	흐린 사람	우유부단, 약함, 소심한

못하였다.

③ 수정 메이크업 :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아이라인 끝을 내리고 새도우를 하여 눈을 내려오게 표현하였다.

(3) 눈이 처진 사람

① 메이크업 전: 기초화장만 한 상태

② 평소 메이크업 : 평소에 본인이 한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단점인 눈이 처진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였다.

③ 수정 메이크업 :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아이라인 끝을 올리고 새도우를 하여 눈을 올라가게 표현하였다.

(4) 광대뼈가 나온 사람

① 메이크업 전: 기초화장만 한 상태

② 평소 메이크업: 평소에 본인이 한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단점인 광대뼈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였다.

③ 수정 메이크업 :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눈 밑을 밝은 화운데이션과 아이새도우를 사용하여 눈 밑이 나오게 하므로 광대뼈가 덜 나오게 표현하였다.

(5) 입술이 작은 사람

① 메이크업 전 : 기초화장만 한 상태

② 평소 메이크업: 평소에 본인이 한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단점인 입술을 커버하지 못하였다.

③ 수정 메이크업: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입술 선을 립 펜슬과 립스틱을 사용하여 입술을 선명하고 크게 하며 입술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가도록 표현하였다.

(6) 인종이 흐린 사람

① 메이크업 전 : 기초화장만 한 상태

② 평소 메이크업 : 평소에 본인이 한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단점인 인종을 커버하지 못하였다.

③ 수정 메이크업 :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인종부분을 어두운 새도우를 사용하고 인종 옆부분을 밝은 새도우를 사용하여 인종을 더욱 더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3) 사진 촬영 조건

모델의 메이크업하기 전과 본인이 한 메이크업과 인상학적으로 한 메이크업을 정면에서 상반신만 촬영하였다. 이 때 얼굴의 표정은 표정에 따른 오차를 없애기 위해 무표정하게 촬영하였다. 사진 촬영 시 사용한 사진기는 Kodak DC 265이고 조리개 수치는 F11이고, 사진과 모델과의 거리는 동일하게 2m이며 모델의 얼굴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하였다. 조명은 600W로 Megazet strobo를 사용하였고, 배경색은 회색계열의 단일 톤을 사용하였다.

4) 측정도구

측정방법은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1. 세 개의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시오
2. 메이크업하기 전의 인상은 관상학적으로 어떠한가
3. 본인이 한 메이크업의 결과 관상학적으로 나아졌는가
4.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한 결과 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해당 항목에서 설문을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성인들의 메이크업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 인상 메이크업과 얼굴과의 관계,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메이크업 실태 및 그에 대한 인식

1) 첫 인상 판단 기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일차적으로 어디를 보고 판단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사람

<표 2> 첫인상의 판단 기준

Classification		Face	Attire	Spee-ch	Hair style	Total
Sex	Female	291 (68.8)	99 (23.4)	22 (5.2)	11 (2.6)	423 (91.2)
	Male	24 (58.5)	9 (22.0)	5 (12.2)	3 (7.3)	41 (8.8)
Age	29 or under	127 (67.2)	51 (27.0)	8 (4.2)	3 (1.6)	189 (40.7)
	30~39 yrs	85 (63.4)	34 (25.4)	10 (7.5)	5 (3.7)	134 (28.9)
	40 or over	103 (73.0)	23 (16.3)	9 (6.4)	6 (4.3)	141 (30.4)
Total		315 (67.9)	108 (23.3)	27 (5.8)	14 (3.0)	464 (100.0)

을 처음 만났을 때 일차적으로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성인이 6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옷차림새 23.3%, 말투 5.8%, 헤어스타일 3.0% 순으로 나타났다.

2. 인상 메이크업과 얼굴과의 관계

1) 눈썹 솔이 없는 사람의 사진 중 선호하는 메이크업상태

눈썹 솔이 없는 사람의 사진 중 성인들이 선호

<표 3> 눈썹 솔이 없는 사람의 메이크업 사진 중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상태

Classification		Bare face	Self-applied make-up	Physiological make-up	Total
Sex	Female	12 (2.8)	86 (20.3)	325 (76.8)	423 (91.2)
	Male	1 (2.4)	9 (22.0)	31 (75.6)	41 (8.8)
Age	29 or under	5 (2.6)	41 (21.7)	143 (75.7)	189 (40.7)
	30~39 yrs	8 (6.0)	29 (21.6)	97 (72.4)	134 (28.9)
	40 or over	-	25 (17.7)	116 (82.3)	141 (30.4)
Total		13 (2.8)	95 (20.5)	356 (76.7)	464 (100.0)

* p<.05



메이크업 전 평소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

<그림 1> 눈썹 솔이 없는 사람

하는 사진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눈썹 솔이 없는 사람의 사진 중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을 선호하는 성인이 7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한 메이크업 사진 20.5%, 메이크업을 하기 전 사진 2.8% 순으로 나타났다($\chi^2=10.43, p<.05$)

눈썹은 색상의 짙고 열기에 따라 그이미지가 달라진다. 색상이 짙은 정도에 따라 강한 허약한 이미지가 있다. 각각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는 선행논문인 홍지은(2001), 신수현(2003), 이경하(1998)이 제시한 이미지들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¹⁵⁾.

인상학에서 눈썹은 그 사람의 지능, 의지, 능력을 나타내며, 가족간의 운과 주변사람의 도움이 가장 잘 나타난다¹⁶⁾고 하듯이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 후 눈썹 솔이 많아 보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되었다.

<표 4> 눈이 올라간 사람의 메이크업 사진 중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상태

Classification		Bare face	Self-applied make-up	Physiological make-up	Total
Sex	Female	12 (2.8)	10 (2.4)	401 (94.8)	423 (91.2)
	Male	2 (4.9)	3 (7.3)	36 (87.8)	41 (8.8)
Age	29 or under	10 (5.3)	5 (2.6)	174 (92.1)	189 (40.7)
	30~39 yrs	3 (2.2)	4 (3.0)	127 (94.8)	134 (28.9)
	40 or over	1 (0.7)	4 (2.8)	136 (96.5)	141 (30.4)
Total		14 (3.0)	13 (2.8)	437 (94.2)	464 (100.0)

* p<.05



<그림 2> 눈이 올라간 사람



<그림 3> 눈이 처진 사람

2) 눈이 올라간 사람

눈이 올라간 사람의 사진 중 성인들이 선호하는 사진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눈이 올라간 사람의 사진 중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을 선호하는 성인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메이크업을 하기 전 사진 3.0%, 본인이 한 메이크업 사진 2.8% 순으로 나타났다.

눈 꼬리 모양에 따라 온순한, 날카로운 이미지가 강하다.¹⁷⁾ 눈은 분장 술에서 눈이 올라간 눈은 횡포스럽고, 도전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¹⁸⁾. 인상학에서 눈은 마음에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과 악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운세에 담겨있는 회로애락의 심리 상태와 현재 상황이 그대로 표출되는 부위이다¹⁹⁾라고 하듯이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

업 후 눈이 내려와 보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되었다.

3) 눈이 처진 사람

눈이 처진 사람의 사진 중 성인들이 선호하는 사진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눈이 처진 사람의 사진 중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을 선호하는 성인이 8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한 메이크업 사진 11.6%, 메이크업을 하기 전 사진 1.1% 순으로 나타났다.

눈이 처지면 우둔하며, 소심하다²⁰⁾.

인상학에서 눈은 양쪽 모두 눈머리와 눈 꼬리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²¹⁾고 하듯이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 후 눈이 올라가 표준으로 보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되었다.

<표 5> 눈이 처진 사람의 메이크업 사진 중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상태

Classification		Bare face	Self-applied make-up	Physiological make-up	Total
Sex	Female	4 (0.9)	47 (11.1)	372 (87.9)	423 (91.2)
	Male	1 (2.4)	7 (17.1)	33 (80.5)	41 (8.8)
Age	29 or under	4 (2.1)	23 (12.2)	162 (85.7)	189 (40.7)
	30~39 yrs	1 (0.7)	20 (14.9)	113 (84.3)	134 (28.9)
	40 or over	-	11 (7.8)	130 (92.2)	141 (30.4)
Total		5 (1.1)	54 (11.6)	405 (87.3)	464 (100.0)

* p<.05

4) 광대뼈가 나온 사람의 사진 중 선호하는 메이크업 상태

사진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광대뼈가 나온 사람의 사진 중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을 선호하는 성인이 9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한 메이크업 사진 2.4%, 메이크업을 하기 전 사진 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97.6%로 남자 90.2%보다 광대뼈가 나온 사람의 사진 중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을 선호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이 29세 이하보다 광대뼈가 나온 사람의 사진 중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을 선호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chi^2=10.46, p<.05$).

<표 6> 광대뼈가 나온 사람의 메이크업 사진 중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상태

Classification		Bbare face	Self-applied make-up	Physiognomical make-up	Total
Sex	Female	1 (0.2)	9 (2.1)	413 (97.6)	423 (91.2)
	Male	2 (4.9)	2 (4.9)	37 (90.2)	41 (8.8)
Age	29 or under	3 (1.6)	7 (3.7)	179 (94.7)	189 (40.7)
	30~39 yrs	-	2 (1.5)	132 (98.5)	134 (28.9)
	40 or over	-	2 (1.4)	139 (98.6)	141 (30.4)
Total		3 (0.6)	11 (2.4)	450 (97.0)	4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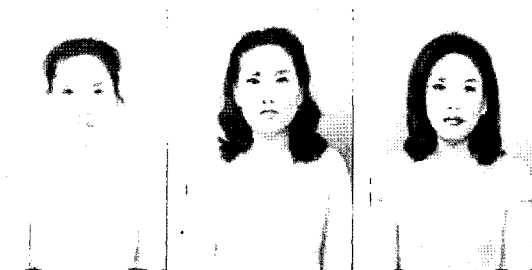
*p<.05, ** p<.01

인상학에서 광대뼈는 독립심, 개척정신, 투지의 강약, 표현력 등을 판단하는 부위이다²²⁾라고 하듯이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 후 광대뼈가 들어가 보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 되었다.

5) 입술이 작은 사람의 사진 중 선호하는 메이크업 상태

입술이 작은 사람의 사진 중 성인들이 선호하는 사진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입술이 작은 사람의 사진 중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을 선호하는 성인이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한 메이크업 사진 4.3%, 메이크업을 하기 전 사진 1.3% 순으로 나타났다. ($\chi^2=30.26, p<.001$)

입술형의 크기에 따라 정열적인, 아동스러운 이



메이크업 전 평소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

<그림 4> 광대뼈가 나온 사람

<표 7> 입술이 작은 사람의 메이크업 사진 중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상태

Classification		Bare face	Self-applied make-up	Physiognomical make-up	Total
Sex	Female	4 (0.9)	12 (2.8)	407 (96.2)	423 (91.2)
	Male	2 (4.9)	8 (19.5)	31 (75.6)	41 (8.8)
Age	29 or under	4 (2.1)	6 (3.2)	179 (94.7)	189 (40.7)
	30~39 yrs	1 (0.7)	8 (6.0)	125 (93.3)	134 (28.9)
	40 or over	1 (0.7)	6 (4.3)	134 (95.0)	141 (30.4)
Total		6 (1.3)	20 (4.3)	438 (94.4)	464 (100.0)

*** p<.001

미지이며 입술이 작은 사람은 아동 스럽고, 귀여운, 소심한, 내성적인 이미지가 강하다²³⁾.

인상학에서 입술은 성격 판단의 요체이고 생활력, 성욕, 애정운, 자손운까지 판단할 수 있는 부위이며, 이상적인 입 모양은 입술 양 끝머리가 약간 치켜 올라가 평상시에도 항상 미소를 머금은 것처럼 보이는 입이다²⁴⁾라고 하듯이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 후 입술이 크고 입술 양 끝머리가 올라가게 보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 되었다.

6) 인종이 흐린 사람

인종이 흐린 사람의 사진 중 성인들이 선호하는 사진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인종이 흐린 사람의 사진 중 인상학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을 선호하는 성인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하



메이크업 전 평소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

<그림 5> 입술이 작은 사람

<표 8> 인종이 흐린 사람의 메이크업사진 중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상태

Classification		Bare face	Self-applied make-up	Physiognomical make-up	Total
Sex	Female	4 (1.4)	49 (11.6)	368 (87.0)	423 (91.2)
	Male	1 (2.4)	7 (17.0)	33 (80.5)	41 (8.8)
Age	29 or under	3 (1.6)	19 (10.1)	167 (88.4)	189 (40.7)
	30-39 yrs	2 (1.5)	20 (14.9)	112 (83.6)	134 (28.9)
	40 or over	2 (1.4)	17 (12.1)	122 (86.5)	141 (30.4)
Total		7 (1.5)	56 (12.1)	401 (86.4)	464 (100.0)

*** p<.001

였으며, 다음으로 본인이 한 메이크업 사진 12.1%, 메이크업을 하기 전 사진 1.5% 순으로 나타났다.

옛날에는 인종 모양을 보고 아들 딸 중의 어느 쪽을 많이 낳을 것인가를 짐작했다. 인종의 윤곽이 흐릿해져 있는 사람은 일이 99%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마지막에 파탄을 가져오는 운세를 갖고 있다. 이상스럽게 그런 불운이 겹치는 상으로 이런 인종을 가진 사람은 특하면 앓기를 잘 하며 병약한 체질이기보다는 긴장이 풀려있기 때문이다²⁵⁾. 인상학에서 인종은 수명의 장단과 자녀의 수를 알 수 있는 부위이며 행동력과 생식 능력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곳이다. 인종은 아래로 향해 차츰 넓고 윤곽이 확실해야 좋은 상으로 생활력이 왕성하고 자식운과 건강이 좋아 장수할 수 있다²⁶⁾고 하듯이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 후 인종이 확실해 보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은 인상이 좋지 않은 상을 좋은 인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외양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 또한 좋은 운세를 살리고 나쁜 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상승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인상



메이크업 전 평소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

<그림 6> 인종이 흐린 사람

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주름살, 얼굴의 흉터와 여드름 자국, 안면 윤곽, 이마, 눈, 코, 광대뼈 등 보다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굴 특징과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연구는 동일한 조건에서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신수현(2002).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뷰티디자인과 석사학위논문. pp.4-7.
- 2) 김광일(1995). 성공으로 가는 인상학. 책만드는집, pp. 35-37, 43-89, 93-175, 205-214.
- 3) 신수현(2002). '위의 책', pp.4-7.
- 4) 신성은(1998). 거울로 보는 관상. 자유문고, pp.35, 57-68.
- 5) 정현우(1988).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인상학. 자유시대사, pp.64-183.
- 6) 설혜심(2001).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한길사, p. 79.
- 7) 신성은(1998). '위의 책', pp.35, 57-68.
- 8) 정호진(2001). 관상백과. 솔빛 출판사, pp.22, 58-59.
- 9) 신일(1976). 觀相學全書. 동양서적, pp.48-49.
- 10) 마의천(1992). 북 있는 관상은 어떤 얼굴인가. 도방인, pp.88-91.
- 11) 신기원(麻衣相法). pp. 67-81.
- 12) 이원석(2002). 성형과 관상. 열매출판사, pp. 86-89.
- 13) 송미영, 박옥련, 이연주(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

- 과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 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 학회지. p.11.
- 14) 송미영, 박옥련, 이연주(2005). '위의 논문'. p.11.
- 15) 신수현(2002). '위의 논문'. pp.4-7.
- 16) 정현우(1988). '위의 책', p.64-183.
설혜심(2001). '위의 책', p.79.
- 17) 권경애(2000).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1-94.
- 18)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6).
- 19) 정현우(1988). '위의 책', pp.64-183.
설혜심(2001). '위의 책', p.79.
- 20)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6). '위의 책'
- 21) 정현우(1988). '위의 책', pp.64-183.
설혜심(2001). '위의 책', p.79.
- 22) 정현우(1988). '위의 책', pp.64-183.
설혜심(2001). '위의 책', p.79.
- 23) 김성진(2002) 신체의 부분, 입술이미지를 통한 내면 의식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24) 정현우(1988). '위의 책', pp.64-183.
설혜심(2001). '위의 책', p.79.
- 25) 윤명중(1989). 얼굴의 미학. 동학사, pp.45-46.
- 26) 정현우(1988). '위의 책', pp.64-183.
설혜심(2001). '위의 책', p.79.